

장성군, 8월까지 주요명소 ‘바닥분수’ 가동

홍길동테마파크·상무평화공원 내달 8~9일 ‘썸머뮤직페스타’

전라남도 장성군이 무더위에 지친 주민들을 위해 지역 명소 곳곳에서 ‘바닥분수’를 운영한다. 버스킹, 썸머뮤직페스타 등 ‘시원한 여름 콘텐츠’도 선보일 예정이다.

7일 장성군에 따르면 8월까지 홍길동테마파크 바닥분수를 매주 토요일과 휴일에 가동하며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휴가철인 28일~8월10일은 평일에도 운영할 예정이다.

물놀이 간 김에 역사 속 실존인물인 홍길동의 생가와 산채체험장 등을 둘러봐도 좋다.

축령산 편백숲에서 불어오는 상쾌한 바람을 만끽하며 캠핑을 즐길 수도 있다.

삼계면 상무평화공원 바닥분수도 인기가 높다. 음악에 맞춰 물줄기가 연출되는

음악분수와 화려한 조명이 피서객들에게 ‘시원한 여름’을 선사한다. 7월에는 주말·공휴일에 가동하고 8월 한 달 동안은 평일까지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주말·휴일 오전 10시~오후 9시, 평일 오후 2시~8시다.

이와 함께 상무평화공원에서는 8월까지 눈과 귀를 사로잡을 공연이 줄을 잇는다.

먼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에 상무평화공원에 가면 ‘더위 타파 버스킹’을 즐길 수 있다.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운영 중인 프로그램으로 마술쇼, 하모니카 연주, 요들송, 국악, 밴드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공연이 관객 맞이에 나선다.

‘2025 어울림음악회 썸머뮤직페스타’도 8월8일에서 9일까지 이틀간 상무평화공원에서 열린다.

첫날은 미스터트롯3 우승자 김용빈, 미스트롯2 출신 강혜연, 불타는 트롯맨



장성군이 홍길동테마파크 바닥분수를 8월까지 운영한다.

장성군 제공

에 출연한 한태현 등이 신나는 트로트 무대를 선사한다.

이튿날에는 ‘낭만고양이’, ‘오리 날다’ 등 대표곡으로 유명한 ‘체리필터’, 월드컵 응원곡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은 실력과 밴드 ‘트랜스픽션’, ‘극동아시아타이거즈’, ‘롤링퀵츠’가 무더위를 날려버릴 락 음악을 들려준다.

시원한 물대포와 무료 물놀이장도 준비됐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방문에 불편이 없도록 주차공간 확보, 수경시설 관리 등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준비하겠다”며 “울여름도 장성에서 신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유봉현 기자



‘찾아가는 사랑의 이미용 봉사’ 삼도농협, 매년 꾸준히 시행

광주광역시 삼도농협은 지난 3일 농가 주부모임 회원들과 함께 ‘찾아가는 사랑의 이미용 봉사’를 실시하며 지역사회에 온정을 전했다

이날 봉사에는 농가주부모임 회원과 삼도농협 임직원 등 20여명이 참여해 관내 경로당을 순회하며 어르신 100여명에게 무료 머리염색 서비스를 제공했다.

제철 과일과 간식도 함께 나누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등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찾아가는 사랑의 이미용 봉사’는 삼도농협이 매년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이다.

농촌 고령화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미용실을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임문제 조합장은 “지역 어르신들께 작은 정성을 전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조합원과 지역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진용 기자

춘란 재배온실 임대 신청자 모집 화순군, 18개소 대상 9일부터 신청

전라남도 화순군은 오는 9일부터 8월 29일까지 지역 농업인의 소득 증진과 춘란 산업 육성을 위해 ‘2025년 화순춘란 재배 온실 임대 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임대하는 재배 온실은 화순군 능주면 만수리 556-8번지 일원에 위치하며 총 18개소(각 27.3㎡) 규모로 구성돼 있다.

지난 3월 착공해 5월에 완공했으며 32.4㎡ 재배 온실 36개소를 먼저 임대 공고했다. 온실에는 차광시설과 수전 시설이 갖춰져 춘란 재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다.

임대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이며 임대료는 연간 73만원에 월 운영비 2만원이 별도로 부과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 마감일 기준 화순군 관내 거주자로 제한되며, 사용 목적은 춘란 재배 및 관련 활동에 한정된다.

선정은 평가표를 바탕으로 점수 득점순으로 진행되며, 주요 평가항목은 난재배 경력, 교육 이수 여부, 사회단체 활동 등이다. 동점자 발생 시에는 재배 경험, 교육 이수, 농업인 여부, 연령 등의 순서로 우선 선정된다.

임대 대상자에게는 9월 중 사전 교육이 진행되며, 임대 장소는 추첨을 통해 결정된다. 운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하고 입주자는 난석, 난분 등 자체 공동구매, 온실 관리 등의 자율 운영에도 참여하게 된다.

신청 접수는 화순군 한국난산업화단지 추진TF 사무실(화순읍 동한길 23)을 통해 우편 또는 방문 방식으로 가능하다. 정원 미달 시는 정원 충원 시까지 수시 접수가 진행된다.

문의는 한국난산업화단지추진TF (061-379-5429)로 하면 된다.

김선곤 한국난산업화단지추진TF 부단장은 “춘란 산업은 화순의 새로운 소득원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이번 임대 사업이 난재배에 관심 있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하길 바란다”며 “향후 지역 특화작물 산업 육성의 성공 모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함평군 해보면 주민자치위원들이 지난 6일 밀재 산책로 일원에서 풀베기 등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함평군 제공

함평군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 환경정비 봉사 활동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여름철 산책로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7일 함평군에 따르면 해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지난 4일 밀재 산책로 일대에서 풀베기 및 환경정비 작업을 실시했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무성하게 자란 잡초와 넝쿨 제거를 통해 벌레나 뱀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이날 작업에는 주민자치위원 15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개인 장비를 활용해 산책로 주변 정비 활동을 펼쳤다.

지역 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적극 임해 지역사회 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김종집 해보면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로를

이용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앞장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정선희해보면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헌신적인 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정비 작업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행정에서도 주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화순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식중독 예방 총력

올바른 손 씻기 등 맞춤 교육

전라남도 화순군과 화순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센터 등록 사회복지급식소 32개소를 방문해 이용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한 손 씻기 교육을 전개했다.

7일 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5월27일부터 6월26일까지 1개월간 ‘30초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면역력이 약한 노인 및 장애인 이용자의 감염성 질환 및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손 씻기의

중요성, 올바른 손 씻기 6단계, 손 씻기 미술 활동 등 이용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미술 활동을 통한 교육은 개인위생 관리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 및 소근육 발달에 도움 되는 활동으로 이용자들의 높은 집중도와 관심을 끌어내는 효과적인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급식센터는 안전하고 건강한 식사를 위해 조리원의 개인위생 관리,소비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관리,식품의 위생적 취급 등 급식시설 위생 관리에 대

한 교육 강화로 식중독 예방과 함께 골고루 먹기, 싱겁게 먹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한 이용자들의 여름철 건강관리를 특별히 강조했다.

나안희 센터장은 “기온·습도가 높은 여름철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크기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음식은 충분히 익혀 섭취하고 조리 전·후 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 씻기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화순=김선종 기자

‘2026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 담양군, 25일까지 공모 접수 최대 5억원 이내 사업비 지원

전라남도 담양군은 ‘2026년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 공모를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단체 참여숲 조성사업은 주민이 직접 계획하고 가꾸는 생활권 숲을 통해 지역 공동체 회복과 생활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사업으로 전라남도 ‘숲속의 전남’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공모 대상은 5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비영리단체 등으로 국공유지 또는 마을소유지 등 공공성을 갖춘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단체가 신청할 수 있다.

민간 소유 토지도 5년 이상 사용 승낙이 가능하다면 대상지로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유형은 쉼터숲형, 풍치숲형, 소득숲, 기타 특화숲 조성뿐 아니라 기존 참여숲의 정비와 보완 사업도 가능하다.

대상지별 최대 5억원 이내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사업비에는 숲 조성뿐 아니라 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편의시설 설치 등도 포함된다.

군은 오는 25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받으며, 자체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에 추천할 계획이다. 이후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도 현장심사, 8월 말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지가 결정된다.

담양군 관계자는 “마을숲, 골목숲 등 지역에 어울리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참여를 기대하며 관심 있는 주민과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신재현 기자